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전국농민연대-민주당, 한·칠레 FTA 국회비준 관련 간담회 개최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지난 5월 29일 전국농민연대(대표 송남수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참여 단체 중 한농연대표로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과 한-칠레 FTA 국회비준 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측에서는 정대철 대표를 포함하여, 정철기 농해수위 간사, 정장선 의원, 김요석 제2정 조위원장, 문석호 대변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전국농민연대 농민단체장들은, “한-칠레 FTA는 첫 단추부터 잘못 낀 협상이며, 비준 여부는 DDA 협상 이후로 미뤄야 한다. 정부는 한-칠레 FTA 발효 후의 피해 규모를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FTA이행특별법’ 제정과 동시에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측 간사인 정철기 의원은 “한-칠레 FTA 체결 관련 업무는 외교통상부가 담당하지만, 선대책 마련은 농해수위의 몫이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전자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부담이 크다. 올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FTA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안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확신한다”고 언급하여, 6월 임시국회 회기중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이 어렵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또한 정대철 대표는, “다음 주에 외교통상부의 한-칠레 FTA 비준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에 관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며, 그 결과를 전국농민연대 단체장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월 29일 현재, 한-칠레 FTA 비준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총 141명에 이르고 있으며, 6월 임시국회가 가까워 올수록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농연-한농연출신 농협조합장협의회간 간담회 실시

한농연이 협동조합개혁의 고삐를 힘껏 당기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월 3일 한농연회관 대회의실에서 일선 회원조합의 한농연출신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주선했습니다. 이날 한농연측에서는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을 비롯하여 김흥기(수석), 김대욱(대의협력), 신명운(사업)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조합장협의회측에서는 황병운(경북 의성 신평농협) 농협조합장협의회 회장, 김의영(대전 원예농협조합장) 부회장, 정재일(전남 장성 동화농협조합장) 부회장, 조현선(경기 안성 고삼농협조합장) 총무를 비롯하여 각



도 대표 조합장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장협의회측은 협동조합개혁에 대한 한농연 요구사항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신·경분리시 신용부분의 관할부서 변경이나 시·군지부 폐지시 시·군 금고 이양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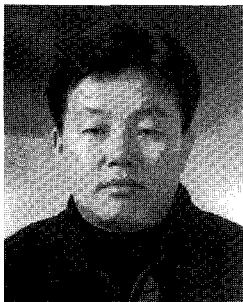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준비해온 협동조합개혁 요구사항에 대해 일선 조합장님들의 현장감 있는 조언을 들으면서 수정·보완할 점을 재점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합장협의회가 농협중앙회를 바꾸고 농협을 개혁해 나가는 제도권 내에서의 개혁주체가 되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한농연출신 조합장협의회는 축협조합장협의회가 33명, 농협조합장협의회가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에 탁명구 전정책조정실장 임명!

7년여 동안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 활동하며 헌신적으로 일해 왔던 이재덕 사무총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면서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국의 부분적인 직책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무총장직은 지난 5월 16일 ‘한농연 제3차 이사회’를 통해 탁명구 한농연중앙연합회 전정책조정실장이 임명되었으며, 정책조정실장에는 손재범 전정책실차장이 임명되어 정책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탁명구 사무총장 약력



- 1995. 서울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 1995. (사)우리농촌살리기 운동본부 조직부장 역임
- 1996.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입사
- 2000.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 차장
- 2001.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현)
- 2002.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분과위원
- 2002.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



한농연 산하연합회 소식

'농협개혁' 둘러싸고 한농연경기도연합회-농협경기지역본부 '마찰'

'농협 개혁' 과 맞물려 농협경기지역본부와 한농연 경기도연합회간 감정싸움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는 지난 15일 이인모 농협경기지역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지도·경제사업 및 회원조합의 지원강화 등 농협 개혁관련 7개 개혁안을 제시하고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협경기지역본부는 5일 후인 지난 20일까지 서면 답변을 제출키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시한을 넘겼으며, 그 이후 보내온 답변서마저도 당초 사업계획에 국한하고 있어 개혁의지를 전혀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 확대 판매방안은 물론 지역농업의 품목별 특화사업 활성화 대책 등의 개혁 요구안에 대한 답변들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계획', '회의 때마다 사업증대 도모' 등 원론적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협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한농연경기도연합회가 요구한 사안은 실제 농협경기지역본부가 할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 자발적인 개혁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한농연경기도연합회는 지난 27일 포천에서 임원진을 소집하여 본부장 퇴진운동 등의 대책을 논의하며 농협경기지역본부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 갔습니다.

한농연경기도연합회 이승엽 차장

DDA 협상 강원지역 순회설명회 무산

5월 27일(화) 14:00, 외교통상교섭본부 주최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DDA 협상 강원지역 순회 설명회가 한농연강원도연합회와 전농강원도연맹 임원진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설명회장소에 제일먼저 단상에 오른 이재길 DDA협상대사는 한농연강원도연합회 임원 및 시군회장과 전농강원도연맹 임원들이 설명회를 저지하자, "우리나라는 농업만 가지고 살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지금껏 이만큼 살게된 것은 모두 수출과 무역을 통해서 가능했고, 그것도 우리나라가 줄서기를 잘해서 운 좋게 지금껏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망발을 일삼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통상부의 DDA협상대사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외교협상을 맞기겠습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설명회 과정에서 정부측에서는 실질적 당사자인 농민들은 제외시킨 채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한농연강원도연합회와 강원농민단체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무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앞으로 DDA 협상의 본질적 문제인 선대책후협상과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한 선대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WTO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후에도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설명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킬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 김종식 차장

경북 청송군 우박피해 심각

경북 청송군소재 한농연 회원들의 우박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때아닌 우박으로 인해 집계된 피해 규모는 김보규 회원님 3000평(과수), 김순도 회원님 3500평(과수), 임상운 회원님 3000평(과수), 임기봉 회원님 2000평(과수), 윤태암 회원님 3500평(복합) 이상으로 농장의 8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개방농정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농업의 앞날이 위태로워지고, 농가부채로 인해 부담이 더해 가는 우리 농민들에게 하늘도 무심하시게 이러한 피해를 안겨주어 농민들의 주름살에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는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다지만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범 국가적으로 그리고 범 사회적으로 어루만져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맑은 하늘을 보며 우리 농부님들의 마음도 언제나 이렇게 환하게 밝아질런지…….

청송군에서 지금도 피해수습에 열심히 땀흘리시는 우리 농민들과 피해파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우리 청송군 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분들과 그리고 특히 간사님께도 감사하다는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농연경북도연합회 김말경 차장



그 밖의 농업계 소식

전국농민연대 출범식과 협동조합개혁토론회 개최

지난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농민연대 출범식 및 농협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전국농민연대 출범식에는 김영진 농림부 장관, 이양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등 각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농민단체장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전국농민연대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금 우리 농업·농촌은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농정실패와 농산물수입개방의 확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농산물 협상과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더 큰 개방공세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며, “이제 전국농민연대는 단체간의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 할 것이며 나아가 전농민적 단결과 연대, 각국 농민단체들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왼쪽부터 상임대표 송남수 가농회장, 김남용 낙농육우협회장, 이규석 한우협회장, 윤금순 전여농회장, 김인호 한여농회장, 서정의 한농연회장, 강춘성 농업기술자협회장, 정진영 유기농업협회부회장.

농협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전국농민연대 농협개혁 단
일안을 발표하고, 한나라당·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정학수 농림부 농정국장, 김재복 농협중앙회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장, 유진춘 한국협동조합학회장, 강기갑 사천농협 감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서정의 한농연중앙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신경분리 및 시·군지부 폐지 등 협동조합 조직체계를 3
년 이내에 분리하고, 농협 내부자금 이자율을 상호금융 금리에서 조달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조합 내부 제도 개선 등 24개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개혁방안의 조속한 시
행을 촉구했다.

전국농민연대 출범 경과

- ▶ 2003년 3월 24일
전국농민연대 준비위원회 발족
(기존 농단협의 실천력 부재와 각기 다른 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의 한계
를 극복하고 실천중심의 새로운 연단체 건설)
- ▶ 2003년 4월 7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지지 투쟁선포식 개최
- ▶ 2003년 4월 10일
협동조합개혁 선포식 개최
- ▶ 2003년 5월 13일
창립총회 개최
- ▶ 2003년 5월 19일
전국농민연대 출범
(참가단체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여성농
업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한국카톨릭농민회, 전국농
업기술자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 ▶ 2003년 6월 3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를 위한 농민연대 기자회견 개최

전국민중연대 공식 출범

지난 5월 21일 전국민중연대가 기독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민중연대는 2001년 3월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 조직'을 지향하며 2년 동안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들이 함께 연대활동을 해왔다.

전국민중연대는 민중의 힘을 하나로 결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자주적 통일조국,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하며, ▲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 철폐 ▲ 사회적 평등 실현 ▲ 외세의 지배 간섭 반대 ▲ 민족자주와 평화 통일 실현 ▲ 민족민주민중운동의 단결과 국제연대 강화 등의 공동투쟁강령을 발표했다. 또한 농업계의 주요실천과제로 농업을 비롯한 교육, 서비스 등 개방 정책 중단, WTO(세계무역기구) 개방과 FTA(자유무역협정)체결·비준 저지, 쌀수입 개방 저지, 농가부채해결, 직접지불제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전국민중연대에는 현재 전농,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철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 전국농협노조 결의대회」 및 「6.8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지난 5월 24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시군지부 철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협노조 결의대회」가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었다.

전국농협노조는 24일 결의문을 통해, “시장 개방 강요의 폭압으로 이 땅 민중의 생존권을 앗아가려 하고 있는 초국적 독점자본에 맞서, 지역농협과 농협노동자에 대한 강제합병과 구조조정의 전횡을 일삼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맞서 농민 형제와의 연대투쟁으로 일어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전국의 시군지부 앞에서 천막농성과 6월 8일에는 5000여명의 회원 조합 노동자들이 참여할 가운데 사직공원에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철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전국농협노조 6.8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하였다. **인농연**